

우리 종단을 말한다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십선도행 실천하는 미륵도량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 하셨다.

“내가 멸도한 뒤 도솔천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부대중이나 하늘·용·귀신은 끊임없이 도솔천을 관하고, 모든 계율을 지키며 하루나 7일 동안이라도 10선을 생각하고 10선도를 행하라.”

(사)한국불교미륵종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미륵십선법을 실천하기 위해 1987년 10월 5일 창종(2000년 사단법인 등록)했다.



송정 스님

미륵십선법 실천하기 위해 1987년 창종 월간지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말씀 전해

종단 스님이 200여 사찰에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간질 하지 말라 ▲욕설을 하지 말라 ▲실없는 말 하지 말라 ▲타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바르게 보라 등의 십선도행을 실천하며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스님과 신도들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자율적 친목 모임인 법우회(회장 혜초)를 조직해 격월로 전국 각 법사를 방문·수행하고 있다.

미륵종은 십선도행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철저한 승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부터 3박 4일 승려단기연수 교육을 실시, 올해 제10차 승려교육을 회향했다. 전국의 법사에서 차례로 진행했

던 교육은 2005년 총본산 관음정사(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대규모의 승려교육장이 마련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9월말에는 종단 소속 각 법사에서 수행하던 예비승려들을 소집, 10일간 대중생활을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10기 사미승 24명(사미 14명, 사미니 10명)을 배출했다. 실천수행의 일환으로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활 보호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2001년 사회복지법인 미륵원(경남 김해시 진례면)을 설립했다. 매년 5월에는 김해 지역 노인들을 초청, 경로잔치를 벌여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미륵원은 노인요양시설로 현재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단순히 요양만이 아닌 예불·수행 등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거듭나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월간 소식지 <사방세계>를 발간, 전국 각 법사와 불자들에게 무료 배포하는 것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회활동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미륵종은 꾸준한 승려교육을 통해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모든 사부대중이 도솔천에 들 수 있도록 포교와 십선도행 실천에 매진할 계획이다. 총무원 (055)345-4741

정리=김진성 기자

한·중 불교 화합 위한 ‘장중한 하모니’

태고종 대형 범패교향합창곡 ‘신주화악’ 공연 성황



10월 18·19일 고양 아람음악당에서 거행된 ‘신주화악’ 공연 모습.

음악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불교교류가 장엄한 하모니를 연출해 냈다. 한국불교태고종과 중국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가 함께 주최한 대형 범패교향합창 ‘신주화악(神州和樂)’이 10월 18일과 19일 두 차례 경기도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공연됐다. 이번 연주회는 태고종이 처음으로 개최한 중국과의 문화교류 행사였다. 공연 첫날인 18일

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 전국 종무원장과 총무원 주요 소인자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관람했다. ‘신주화악’은 2006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불교포럼에서 처음 연주된 범패교향악으로 ‘화합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아 처음으로 개최한 중국과의 문화교류 행사였다. 공연 첫날인 18일

80분 분량의 대곡이다. ‘구룡관옥’이란 주제의 서곡에서 화장세계, 자비원회, 선열해풍, 연당관명 등 5악장으로 구성된 ‘신주화악’은 중국 중앙음악대학 작곡과 당건평 교수가 작곡했다. 이번 연주에는 심천교향악단, 상하이 오페라합창단, 심천 흥법사합창단, 소프라노 심나 등이 하모니를 맞췄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진각종 회당 대종사 열반45주기 추념불사



10월 16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봉행된 회당 대종사 추념불사. 사진왼쪽은 도훈 총인.

진각종(총리원장 회정 정사)은 회당 대종사 열반 45주기 추념불사를 10월 16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추념불사에서 총리원장 회정 정사는 “회당 대종사께서는 ‘옛날에는 의발(衣鉢)이요, 현재는 심인발’이라는 열반계승을 남겨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참된 가치를 깨우치기를 부촉하셨다”면서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이웃과 사회의 회포애락을 함께하는 실천의 주

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불사에는 도훈 총인을 비롯해 원로스승과 종립학교장, 총금강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같은 날 회당 대종사 열반성지인 대구 북구 침산동 불심심인당에서는 대구교구 스승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연합 추념불사가 봉행됐다. 탄생성지인 울릉도 금강원 종조전에서도 울릉도 내 각 심인당 정사와 신도들이 참석해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김성우 기자

해동불교 무량종 사미계 및 보살계 수계법회

해동불교 무량종(종정 법일)은 10월 19일 여수 무량사(주지 학성)에 설치한 금강계단에서 출가자 28명과 재가자 50명에 대한 사미계 및 보살계 수계식을 각각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법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출가자는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근본을 지켜 누구에게나 화합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수행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계단을 여는데 기여한 무량사 주지 학성 스님은 “종단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출가자가 탄생하는 날이라 더욱 뜻 깊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초 종정 ‘태고종도는 대동화합 하라’ 태고종 ‘종단현안 대책위’ 구성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진퇴와 관련, 내용을 겪은 태고종이 ‘종단현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내분이 일단락됐다.

태고종 총무원은 10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무원장 총무추진과 관련한 의혹과 종진스님의 총무원장 사퇴 요구로 발생한 불협화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종단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원로회의 결의에 입각, 이번엔 문제를 제기한 종진스님을 포함한 중앙 간부스님으로 ‘종단현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또 “모든 문제는 중앙

종회를 개최해 처리하고 종도는 대동화합 하라’는 해초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향후 총무원장 사임 및 중요 총무처리 등 종단 현안사항은 ‘종단 현안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성된 현안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공(중앙총회의장)·월운(중앙사정위원장) 스님, 위원에 대은·원봉(총회부의장) 월해·보경·환우(총무원 부위원장) 백운(총무원 총무실장) 청봉(중앙초심원장) 영우(중앙총회의원) 스님으로 구성됐다.

김성우 기자

세계 재가불교지도자 소통과 화합의 자리 총지종,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성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참가자들은 10월 18일 월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다.

“산중 불교를 저자로 가져와 대중의 정신을 일깨우고 대중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재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민했다.”

총지종(총리원장 원승)은 서울과 강원도 월정사 등지에서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10월 16~20일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측 대표로 법현 스님(월정사), 박광서 교수(서강대), 성태용 교수(건국대), 원병관 교수(강원대)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프란츠 그슈윈트 박사(독일, 前 뮌헨대 교수)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16개국 30여 재가불자 지도자 및 재가불교운동관련 학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1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 주제발표, 18일 강원도 월정사와 상원사에서 템플스테이

이 활동, 19일 한국문화프로그램과 전문문화공연 관람을 했다.

17일 주제발표는 ▲재가불교의 철학 ▲근대 재가불교지도자들 ▲재가불자들의 협력방안의 3개분과로 나누어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재가불교의 철학’ 주제발표에는 성태용 교수가 ‘재가불교운동의 철학’, 율리히 티메 크라프 교수(금강대 HK)가 ‘이끌어주는 명상’, 제시카 존스 교수(루드윅 맥스밀리안대)가 ‘일상생활을 위한 불교철학의 선택’ 등을 발표했다. ‘근대 재가불교지도자들’ 주제발표에는 법현 스님이 ‘청평거사 이자현을 통해 본 소통의 문제’, 후양진주 교수(대만 국립정치대)가 ‘포르모사의 불법전파’ 등을, 재가불자들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는 박광서 교수, 화평 정사 등이 참여했다.

조종섭 기자

스님! 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병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개강일: 11월 3일 월요일반 ·개강시간: 오후 1시

▶ 교육기간: 6주(24시간) ▶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60만원 ▶ 대상: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베스트화제작
신간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가지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조영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